



민주 8·17 전대... 당대표 후보 3파전

예비경선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로 압축... 최고위원은 박선원·이성운·한민수·서미화·최민희 등 8명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후 8·17 전 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당 대표 후보를 5명에서 3명으로 압축했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가 본 경선에 진출했고, 고인정·김보미 후보는 탈락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열리는 전당대회를 향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비경선 결과를 공개했다.

당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35%, 권리당원 35%,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앙위원은 국회의원과 시·도당위원장, 상임고문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정치권에서는 애초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고, 실제 결과도 예상대로 나왔다.

세 후보는 향후 권리당원 표심과 조직력을 놓고 치열한 본경선에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예비경선의 또 다른 관심사는 최고위원 선거였다. 총 14명의 후보 가운데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를 반영한 윤리인 투표로 실시됐으며, 1인 1표·2인 연기명 방식이 처음 적용됐다.

한 번의 투표에서 후보 두 명을 선택하는 선호투표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최고위원 본선 진출자는 박선원·이성운·김용·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피에 후보로 확정됐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아쉽게 탈락한 후보는 이견태·박승준·박승원·정민철·신계륜·김형남 후보다.

이번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 가운데 이성운·한민수·최민희 후보는 친정청대계로 분류되고, 나머지 후보들은 반친명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 선거는 범친명



전북자치도 제2기 출범과 함께

대 초청 구도의 '러닝메이트 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 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이 한 팀처럼 움직이며 조직 결집과 권리당원 표심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예비경선 과정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인물은 단연 36세의 신예 여성 정치인 김보미 후보였다. 비록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2030 세대의 민주당 이탈 현상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젊은 정치인의 이미지를 강하게 각인시켰다.

송영길 후보의 부인 남영신 씨도 남편의 유세를 지원하는 연설에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자신의 딸 문제와 2030 젊은 층의 정치혐오를 연계한 연설을 통해 송 후보가 젊은 층의 표심을 얻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가 23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자치도 제2기 출범과 관련된 비전제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서는 서미화 후보와 임피에 후보의 연설이 큰 주목을 받았다. 시간강사인 서미화 후보는 "내란의 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고 회고하며 정청래 당대표 때 민주당의 비민주적 운영 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당내 민주주의 회복과 투명한 정당 운영을 강조하며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임피에 후보 역시 민주당의 불모지로 꼽히는 경북 지역에서 지방의원 활동을 거쳐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진솔하게 소개했다.

"민주당 불모지인 경북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민주당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녀의 발언은 호남 등 비교적 민주당 정당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권리당원들의 큰 공감을

얻으며 당원과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예비경선은 민주당이 처음으로 선호투표 방식을 도입한 선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단순한 조직 동원보다 후보 선호도와 확장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 8인 후보 경쟁이 동시에 펼쳐지는 가운데, 누가 차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될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당 지도부가 되어 2028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천권과 2030년 대선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방향을 주도하게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크게 집중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정든 집에서 스스로 당당하게

전주시, 상반기 의료·요양 통합돌봄 총 3510건 제공

전주시는 지난 상반기 동안 통합돌봄 복지지원 발굴·연계부터 병원 동행, 생활 돌봄에 이르기까지 총 3,510건의 의료·요양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는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1655건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1608건 △전주시 재봉틀사업 247건 등 총 351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물이다.

특히 시는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로 △보건의료분야 1083건 △생활지원 분야 359건 △주거지원분야 43건 △찾아돌봄 스마트돌봄플랫폼 외 기타 분야 170건 등 총 1655건을 연계·지원하며 대상자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했다.

지역특화서비스단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돌봄서비스 외에 기초자치체의 인구 구조, 재정 상태, 주민의 욕구 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운영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시는 현재 33개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병원 동행 서비스는 동행매니저가 병원 접수부

터 진료, 귀가까지 하루 3시간, 주 1회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 목표인 3000건 중 지난 상반기에만 1608건을 제공했다. 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는 무료로, 일반 대상자는 3시간 기준 3만 원의 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주지역자활센터와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미용과 정리정돈, 대형 폐가구 운반, 인생사진 촬영, 어른용 기저귀 지원 등 기존 복지서비스로 지원하지 어려웠던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재능 기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전주시 재봉틀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4년 8월부터 시작된 재봉틀 사업에는 현재 20개 분야 108명의 재능봉사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는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총 247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시는 35개 동 통합돌봄 담당자의 협력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인 '온돌 네트워크'를 격월로 운영하면서 현장 사례 공유와 협업을 통해 통합돌봄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 쌀값 대형마트·전통시장 간 가격 큰 편차

홈플러스 4만4900원

남부시장 2만8000원

전주지역 주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농산물 가격을 비교한 결과, 판매처별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쌀은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1만6,900원에 달해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결과 쌀의 평균 가격은 3만2천791원이었으며, 최고가는 홈플러스 전주효자점의 4만4,900원, 최저가는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의 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품목이라도 판매처에 따라 약 60%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감자는 평균 4,334원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 전주효자점이 6,878원으로 가장 비쌌고, 농협하나로클럽은 2,600원으로 가장 저렴해 최고가와 최저가

의 차이는 4,278원이었다.

배추는 평균 5,197원으로 나타났다. 중앙시장이 7,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굿모닝마트(평화점)는 3,480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보였다.

양파의 평균 가격은 4,033원이었다. 롯데슈퍼 효자점이 5,490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남부시장은 2,00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해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감마늘은 평균 5,195원으로 조사됐다. 롯데백화점이 9,933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반면, 남부시장은 3,200원으로 가장 저렴해 6,733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 품목은 대형마트가 더 낮은 가격을 보이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들의 꼼꼼한 가격 비교가 가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상근 기자

도, 농촌 돌봄서비스 전국 최다 운영 실적

총 27개소 선정... 6년 연속 선정 성과 거둬

전북자치도는 올해 전국 176개 사업 대상지 가운데 27개소가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2021년 11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 18

개소, 2023년 23개소, 2024년과 2025년 각각 26개소에 이어 올해 27개소까지 확대하며 6년 연속 전국 최다 운영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이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활용해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삶의 질과 공동체 회복력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